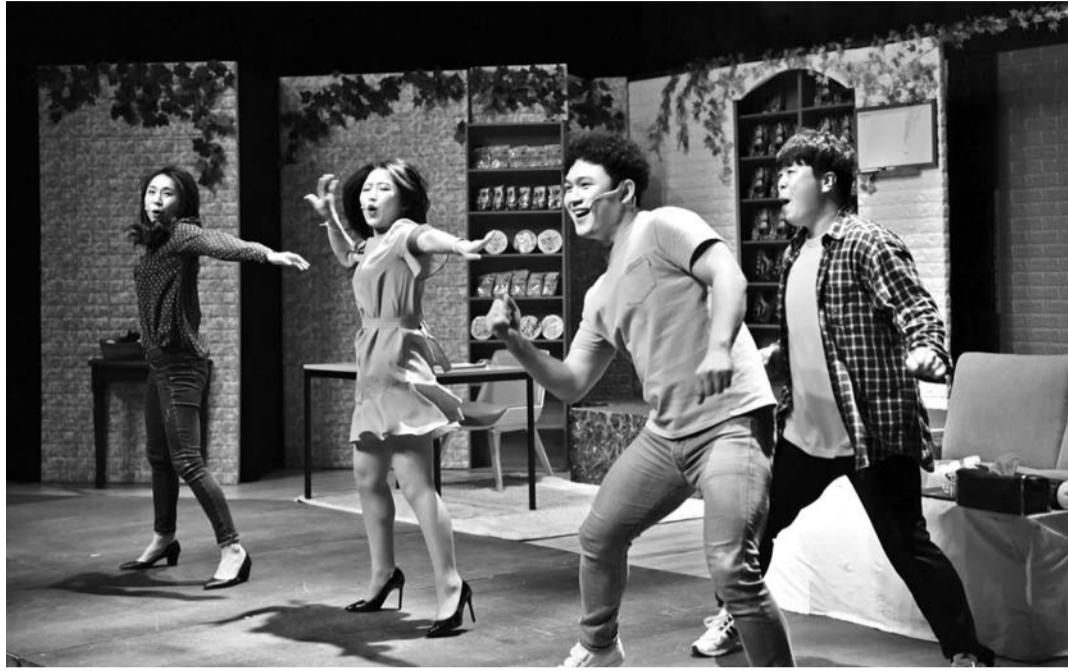


인생 역전 꿈꾸는 청년들의 사랑이야기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달동네 콤플렉스'
12월 30일까지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뮤지컬 '달동네 콤플렉스'가 오는 12월30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나에게 로또 당첨의 기회가 온다면?"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달동네 콤플렉스(달·콤플)'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상상으로 시작한다. 지난 20일 찾은 '달·콤플' 공연은 연인·친구·어린이 등 다양한 관객과 함께 1시간 30분 내내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을 내건 '달동네 콤플렉스'는 인생 역전을 위해 행운을 꿈꾸는 달동네 청년들을 그렸다.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만화책 대어점을 배경으로 수많은 가위표가 처진 무가지 구인광고, 컵라면 등 '3포', '5포' 세대를 대변하는 소품들로 무대를 꾸몄다.

전역한 지 얼마 안된 태석(권형안)과 2년째 백수인 백인기(박인수)는 매일 만화방을 전전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이들은 흥겨운 선술과는 반대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달동네도 해가 뜨러 나'라는 노래말로 우울한 대화를 나눈다.

힘든 청춘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 태석은 인기의 여자친구 정애자(신아윤)의 소개로 만난 고소현(김금인)과 사랑을 키워간다.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을 부르며 설레는 감정을 표현하고 1980년대 큰 인기를 끈 노사연의 '만남'을 접목해 세레나데를 부른다.

시종일관 쾌활했던 극은 복권이 당첨되면서 분위기가 전환을 맞는다. 일확천금의 기쁨도 잠시, 연인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인기와 예자는 뺨고를 추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다. 이 둘은 각각 2AM의 '이 노래'와 제즈풍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에게 생긴 간극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 중 하나가 태석과 인기의 '브로맨스'다. 이들은 청춘의 꿈을 담은 '온다 온다 온다'를 부르며 좋은 호흡을 펼쳤다. 또 주역과 귀신, 은행원 등 단역을 오가며 1인 4역을 펼친 김금인의 팔색조 연기도 돋보였다.

작품 제목에 드러나는 달동네를 영상사하기 어려운 무대와 매끄럽지 못한 음향 처리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복권 당첨'이라는 주요 사건과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가 인과성이 떨어져 극중 공백이 느껴지기도 했다.

오는 12월30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휴무). 전석 4만원. 문의 062-360-84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찬바람에 곶을 파는 물살은 주름살이다

'드들강 시인' 김황흠 시화집 펴내



"드들강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나는 천연의 드들강과 절정의 시간을 함께한 마지막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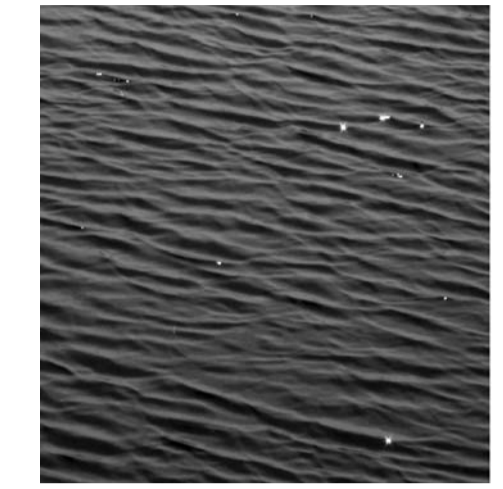
'드들강 시인' 김황흠 시인이 시화집 '풍경과 시가 흐르는 드들강 편지'(문학들)를 펴냈다.

드들강은 화순군 계당산(580m)에서 발원해 나주시를 가로질러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영산강 제1지류다. 드들강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온다. 옛날에 홍수피해가 잦아 보물 만들었으나 계속 독이 터지자 '드들'이란 처녀를 제물로 독속에 넣고 보물 만들었다고 한다.

김황흠 시인은 이곳, 드들 강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시인에게 드들강은 언제나 현재형이다. 일터이자 자전적 도로이며 산책로다. 그는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일과를 온통 드들강변에 바친다. 드들강이 좋아서 그 품으로 이사한 후부터는 시공의 경계를 넘나들며 드들강과 함께한 것이다. 드들강은 수질이 깨끗하기로 유명했지만 영산강 4대강 사업과 드들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

책에는 그가 몸으로 쓰고 찍은 시와 사진이 담겨 있다. 정갈한 시어와 여백이 있는 사진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물결을 주름살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날 그 환



한 웃음살/ 겨우내 찬바람에 곶을 파고는/ 우수, 경칩 즈 지나/ 굵은 주름살 물에 펼친다"("물 주름")

시인은 찬바람에 곶을 파는 물살을 응시하며 '물 주름'이라 표현한다. 모두 50여 편의 작품에는 시인의 생애 드리워진 드들강의 세월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다. 눈부신 청동오리 떼의 군무, 아이들이 발가벗고 뛰놀던 아련한 모습 등이 고스란히 겹쳐진다.

그는 "자연을 소유하거나 정복하려고 드는 건 인간의 오만"이며 "강에게 보복을 맞추며 살아온 선인들의 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 책을 펴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인은 2008년 '작가' 신인상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술', '간니가는 시간'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정아가 읽어주는 슈베르트 편지

2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정아

서툰 삶에 병으로 세상을 등진 '비운의 천재'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1797~1828)를 그가 남긴 편지와 음악으로 돌아보는 연주회가 열린다.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의 편지' 두번째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지난 달 베토벤 편에 이어 이번에도 피아니스트 김정아가 슈베르트가 남긴 글 낭독과 연주를 맡았다. 이 화여대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정아는 광주대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적막한 뒤안길 그 외로운 여정'이라는 부제로 고독과 고통 속에 쓴 편지와 글을 통해 짧은 생을 살다간 작곡가 슈베르트의 음악여정을 따라간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 중 '밤인사'를 시작으로 '얼어붙음', '보리수', '회상', '이정표'와 마지막 곡인 '거리의 악사'가 이어진다. 24개의 노래로 이루어진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으로 1827년 그의 나이 서른 살 때 작곡된 작품이다.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추운 겨울 연인의 집 앞에서 이별을 고하고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들뜬 방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피아노곡으로 편곡된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 2악장'을 연주하고 그의 마지막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21번 1-2악장'을 연주한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10-6331-68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에 출연하는 보컬그룹 'M.O.D'

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 2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창작 뮤지컬 '아버지의 일기장'이 오는 24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초연한다.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광주작곡가협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영 연출가가 기획과 연출을 맡았다.

이 감독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뛰어있던 '5·18 동아'가 40대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느낀 소회를 뮤지컬로 표현했다. 5·18을 거친 세대 모두가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극이 구성됐다.

보컬리스트로 이루어진 그룹 'M.O.D'와 극단 피터팬이 무대에 올라 연기와 노래를 한다. 박현욱, 김선혜, 나혜스민, 송승관, 박창민, 최정훈, 신도현, 김용환 등이 출연한다. 전석 1만원(학생 5000원). 문의 010-5029-859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블랙리스트 관련자 정직 4명·감봉 3명 등 처분 마무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직위 4명을 정직하고 3명은 감봉, 4명은 견직, 5명은 임중주의 조치했다.

문화예술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예술위는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6명), 선행처분(1명), 징계시효 종료(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문화예술위는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을 제외한 총 16명에 대해 정직 4명, 감봉 3명, 견직 4명, 임중주의 5명으로 진상조사위 징계 권고 대상자 23명에 대한 처분을 완료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시재생 전문가 초청 전남대 '오픈스쿨' 오늘 문화전당

일본 도시재생 전문가를 초청 관광마을 만들기 주제로 한 강연이 열린다.

전남대 '2018 문화도시 오픈스쿨(문전성시) 7번째 시간'이 22일 오후 3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강의실2에서 열린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원장 김양현)이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손정연)과 함께 준비한 이 프로그램은 문화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공개 강좌다.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광마을만들기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오픈스쿨에서는 일본 와카야마 대학 관광학부의 유미코 호리타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호리타 교수는 일본의 정책으로서의 도시재생과 일본 현지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관광마을 만들기 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도시문화재단CS의 정성구 박사, 광주전남연구원 민현정 책임연구위원, 주식회사 이한호 대표의 토론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530-4079, 408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루팡 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할.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속속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